



문화매일신문



제1544호

2024/3/6/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외식산업 k-글로벌 푸드 도약을 위해 패러다임 바꾼다

경북도, 야놀자와 업무협약으로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추진

경북도는 외식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야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K-푸드 도약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섭 (주)야놀자 에프엔비솔루션 대표,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스마트키친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개발 ▲디지털 신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자문 등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함께한다.

경북도와 야놀자는 경북도 외식산업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디지털 대전환으로 외식 환경 변화 추세와 외식업 영입주의 디지털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우선, 외식업 매장관리의 효율화와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



2024. 3. 4.(월) 10:30 경북도청 사립실

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경영솔루션을 지원한다.

연구지원센터 구축과 고객의 방문 전부터 매장 이용 전후의 모든 단계를 통합 데이터로 관리하는 'K-키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과 협력한다.

도가 추진하는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서 외식 수요 감소와 인건비, 임대료 등 각

종 요인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국내 외식사업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외식 업소들이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로 인해 편리성과 경영 효율성은 좋았지만, 공간적 제약이나 데이터 활용과 같은 문제로 확장성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전통적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경북의 자력으로 외식산업이 글로벌 K-푸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앞장

10일까지 도민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 나서

전라남도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3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1주일간을 탄소중립 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의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도민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도는 4일 정찬군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탄소중립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일회용품 대신 개인 다회용컵 이용하기, 보고서 양면인쇄 등 10가지 실천 수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로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했다.

5일에는 전남도와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공유의 장이 열린다.

6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전남도 본청, 사업소, 시군, 유관기관 등 공공건물 소등 행사를 하고, 아파트와 기업 등 민간 건물의 자율 소등 행사를 유도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길 방침

이다. 이어 7일에는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안 탄소흡수원(블루카본)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과제 추진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서약, 실천 운동,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환경 정화활동(플로깅) 등 자체 탄소중립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정찬군 본부장은 "공직자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탄소중립 주간'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재인식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3월 3일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하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매년 탄소중립 주기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직원이 뜻을 모은 자체 비전선포식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4년 3월 4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해석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2023년 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받았다.

이에, 연구원 전 직원이 지난 10년을 뒤돌아 보고, 2024년 1월 2일부터 2달간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비전 선포식은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 지원 전문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종합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한 '발전방안 TFT'의 추진 결과 보고'와 직원 대표가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다음의 6가지 비전을 새롭게 선언했다.

-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여 경기 교육 발전에 기여'
 -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책무 충실'
 - '창의적이고 질 높은 연구를 통해 미래 경기교육정책을 선도'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유인'
 - '경기교육 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교육생태계 조성'
 -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 실천'
-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도민과 도의회 질타와 요구는 연구원을 거듭나게 하는 자양분이 됐으며, 금 번 선포식은 2024년 새로운 불과 함께 연구원이 증거 기반 교육 정책 지원 전문 기관으로의 성장을 시작하는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전 선포식 일시 2024.3.4.(월) 10:00 장소 총재관 3층 대회의실

연구원은 2013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한 재단법인으로서 조사·연구·개발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기도의 유일한 교육연구 전문기관이다.

김진숙 원장은 "연구원은 연구원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

심하여, 교육 정책 지원 전문기관,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기관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기관으로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교육연구 전문 기관을 만들 것"이라며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중장기 계획 등을 감안 내년도 국비확보 9조 7천억 원 도전

3월 4일 14:30 신관 대회의실, 제1차 국비확보전략회의 개최

김진태 도지사가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9조 7천억 원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참여해 국비확보 활동계획을 시작으로 실국별로 발굴한 주요 신규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이번에 목표로 설정한 9조 7천억 원은 2024년도 확보한 9조 5,892억 원 대비 1.3%(1,2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건은 쉽지 않지만 도내 주력 사업의 증가폭인 1.2%를 감안해 설정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과 계속사업으로 SOC사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37건 1조 1,520억원 규모이며,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총 182억), △의료 반도체센서 실

증 플랫폼 구축 10억원(총192억), △천연물 의약소재 광역협력지원센터 조성 및 상용화 지원 75억원(총551억), △헬스케어인정 SOS 사업 34억원(총 300억) 등 미래산업 예산이 2,968억원으로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신규사업은 반도체, 바이오, 천연물, 수소 등 미래산업 중심"이라며, "특히,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비 확보를 염에 있어 지방비 매칭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및 4~5월 부처안 편성단계 실국장 부처방문, 6~8월 정부안 편성단계 지휘부 기재부 방문, 9~12월 국회의 단계 국회 상황실 개설 등 예산확정 단계까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움직여 국비확보 총력전에 돌입하게 된다.

강효철/기자



충북도, '당산터널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국민 대상 323건 접수, 대상 'OPEN BUNKER' 선정

충청북도는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대 확산과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당산터널 활용방안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주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의 핵심 관광자원이 될 충북도청 당산터널(옛 충무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 12. 27. 부터 2024. 2. 14.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32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창의성, 활용성, 효과성, 지속성 및 제안서의 완성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0명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문화공간, 스마트팜, 팝업스토어, 열린도서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대상작으로는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열린 벙커'OPEN BUNKER' 제안으로 지하벙커와 지상의 공원을 연결하고 숲속 미술관 및 문화심터를 통한 새로



충북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작으로는 도심 속 지친이들을 위한 힐링벙커를 테마로한 '아치 뮤직 벙커 (Arch Music Bunker)'가 선정됐다.

충북도는 우수아이디어 선정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간담회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산터널은 1973년 충무시설로 준공되어 전쟁 등 위기 상황을 위한 지휘 시설로 사용되다, 지난 12월 '당산 생각의 벙커'로 개명됐으며, 도민을 위한 문

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산터널 관련 공모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됐다"며 "도입이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는 사업에 반영하여, 당산터널을 충북 문화의 바다 핵심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충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청주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등 기존 관광자원과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통하여 도보관광공간을 조성하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다.

고정화/기자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 특수교육 기본조례로서 역할 기대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윤태한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5분자유발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미래, 이제 꿈꾸게 해줍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가족돌봄청년을 그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는 기특한 효자/효녀'로 인식했을 뿐 독박 돌봄 중인 이른바, 역할전이가 일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역시, 자신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일찍 철이 든 기특한 아이'로만 바라보기에 이들이 처한 삶의 여건이 너무나도 버겁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앙에서는 '2022년 가족돌

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가족돌봄청년이 약 1.8%가 된다는 결과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약 5%가량이라는 결과가 나와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주일 평균 21.6시간을 가족돌봄에 할애하는 등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시간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 내용에서도 주로 ▲가사(68.6%)와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부터 ▲웃 같이입히기, 세안 및 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이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다니는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며, 이들의 음식, 주거,

의료, 신용 등의 박탈지수가 청년비율보다 2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자살생각과 우울감은 더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결과적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고용, 그리고 가족형성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부산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부산시만의 대상자 설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긴급돌봄의 형식이나 중앙의 공모사업이 아닌, 부산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현재 윤 의원이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정비 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거듭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현재 소관부서가 없다는

대응보다, 유관조직이 모두 합심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임 꾸칭치 주광주중국총영사와 환담

도의회와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 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 전라남도의회를 예방한 신임 꾸칭치(顧景奇)주광주중국총영사와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장청강(張承剛) 前 총영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꾸칭치 주광주중국총영사가 지난 2월 21일자로 새로 부임하게 되어 이뤄졌다. 서동욱 의장은 "먼저 제6대 주광주중국총영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광주총영사관은 2007년 개관한 이래 전라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 간의 교류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덕담을 건넸다.

면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전라남도는 역사적인 인연이 깊다."며, "전라남도의회를 예방한 신임 꾸칭치(顧景奇)주광주중국총영사와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 및 중국 기업의 전라남도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장시성(江西省), 푸젠성(福建省), 산시성(山西省), 장쑤성(江蘇省) 등 5개 성(省)의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한중의원선협회를 조직하는 등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1호 소방관 명예도로' 소방영웅길 지정 기념식 참석

김 의장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재난 현장의 구조 개념 바뀌어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소방학교 내 대강당에서 열린 소방영웅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23년 전 홍제동 주택화재 참사로 순직한 여섯 소방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처우·예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의 첫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인 소방영웅길 지정 기념식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박철성 의원,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23년 전 홍제동 주택화재사고로 순직한 여섯 소방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념사를 시작한 김 의장은 "아버지는 커다란 분이었는데 사고 당시 여섯살 자녀의 회고가 가슴을 때린다"며 "순직 소방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영웅이자 위국헌신의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소방관에게 방화복이 전면 보급되고 의용소방대가 창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방관의 순직-애도-희생-추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살려서 돌아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도록 재난 현장의 구조 개념이 이전 달라져야 한다"며 "소방 영웅의 지위, 여건, 처우와 예우 개선이 재난안전도시 서울의 분수령이 되도록 입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정된 소방영웅길은 서울시가 지정한 첫 번째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인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홍제동 161-1)에서 고은초등학교 앞(홍제동 156-461)까지 이어지는 382m 구간이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최

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27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가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정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중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

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서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호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서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1차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윤근수/기자

시흥시의회 이봉관·이건섭 의원, 주유소에서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남시의회가 지난 12월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견결을 나섰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

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다양화 추구하고 민·관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이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과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하

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도 수립돼 있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하남시의 기후대응 정책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의 기후위기 정책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난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에 이르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하남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하남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정혜영, 최준중,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이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전자영 의원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 진행

용인 서부소방서가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과 안전행정부위원회 전자영 의원(용인4)이 4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남종섭회장 이민희, 여성회장 조랑자)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연되고 있는 용인 서부소방서 임시청사의 조속한 개청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이 확정돼 관련 예산 13억 4천만 원이 확보됐고, 기흥구 신갈동 구 한전 KDN 용인지사 자리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4월 중에 개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조직 신설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평생교육국 폐지 및 국제협력국 신설 등의 문제로 경기도의회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개청이 늦어지고 있다.

이민희 연합회장은 "서부소방서 임시청사 임대 계약까지 끝난 상황에서 4월 개청이 미루어지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서부소방서가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종섭 대표의원은 "서부소방서 조직 신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이나 논란이 된 평생교육국 폐지 및 국제협력국 신설과 별도로 분리하여 오는 4월에 예정된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다"면서 "4월 임시회에서 잘 처리가 되면 5월부터 계획대로 청사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서부소방서 임시청사가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신청사 부지 문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구가 120만 명 가까이 되는 용인시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가 용인소방서 1곳 밖에 없어 서부소방서의 개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에 개청 되는 서부소방서는 기흥구 및 수지구를 관할하게 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경기북부 동·서축 연결 기대"

29일,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9일,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 개통식에 참석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수동을 지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까지 26km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번에 개통된 오남~수동 구간은 노선 중 미개통된 8.1km 구간을 연장한 것으로 총공사비 2,426억 원이 투입됐다.

오준환 의원은 "남양주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공사관계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오남~수동 구간 연장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은 핵심도로 건설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 한시집 출간으로 3.1운동 105주년 되새겨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의 미발간 시집이 발간되어 3.1운동의 105주년을 기리는 데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 출신의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의 미발간 한시(漢詩)들을 모아 한시집을 출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중추과와의 협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장효근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작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의원은 "이 시집의 출간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넘어서, 3.1운동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시집이 발간됨으로써,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동암 장효근 선생은 1867년 태어나 천도교 지도자이면서 언론인으로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한 실무 책임자였으며 이때문에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천도교 경성대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사업을 하면서 여성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한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사설과 삽화로 이름을 날렸다. 1931년에는 '총장공 권을장군 기공사수리기성회'를 조직해 행주산성 권을 장군 사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임진왜란에서 애적을 물리친 권을 장군의 업적을 기림으로 지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린 다음 해, 1946년에 영면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고양시 행주에 있던 묘소는 2003년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道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정윤경 의원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학생 체육활동의 중요성 당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총 150억 원을 투자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을 검출했거나 노후화된 인조 잔디 등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에는 경기도청 교육협력

과장 박상용, 교육협력팀장 곽병규, 교육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상용, 학생스포츠팀장 한상규, 지자체주인협력담당 이선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예산이 한정되어 친환경 운동장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5월 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학교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규 편성된 교육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통의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교육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 협력사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교육 협력사업은 경기도시사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영양 들려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매일 꼭드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깁니다. 영양으로 오세요.



길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김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민속문화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지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지연휴임원, 영양신촌생태휴양림,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5분발언서 일타강사 변신... 새로운 시도에 호평이어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GTX-플러스 E 노선에 대해 "최종 목적지인 송우역과 그 전 역인 별내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21km이고 약 9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철도 신설은 경기 북부지역 도시의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정부 동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 교통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진 표출자로서 오 의원은 제안하려는 내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일타강사로 변신했다.

오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GTX-플러스 E 노선에 대해 "최종 목적지인 송우역과 그 전 역인 별내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21km이고 약 9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사-암사-구리 농산물도매시장-다산신도시-별내역을 연결하는 8호선 확정노선에 대해 설명하며 "의정부 동부 지역에서는 별내선 중착역을 별가람역-고산, 민락까지 연장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대강위 광역철도 특별법에 근거해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는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구간의 대부분이 남양주 지역이라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핵심"이라면서, "의정부까지 연장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 연장을 동시에 추진·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다"면서 공용선로·공용역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두 광역 급행, 안행 노선을 1개의 노선(철로)를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선로 개설 비용과 두 열차의 공용역사 신설(가칭 동의정부역) 비용을 절감해 경기 동북부의 철도 신설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광주시는 4월 새 학기를 맞아 '올바른 식생활 첫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입학생 650여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광주시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광주시 외식업지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홍보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등을 안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 물품과 리플릿을 제작·배부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그리니·크리니 광주시 캐릭터로 친근감을 더해 가족과

함께 첫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입학울 축하했다.

방세환 시장은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울 축하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1차 신청 접수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차 신청...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100주년 백만화성

2024년 화성시 1차 농어민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4. 3. 11. (월) ~ 4. 10. (수)

신청대상
화성시에 주소 및 농지 또는 어업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만19세 이상)

화성시가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지난해 3차에 걸쳐 농어민 1만 9,947명에게 118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어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으로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3~4월, 2차는 9월 예정이며, 1차 신청분은 6월과 12월에, 2차 신청분은 12월에 소급해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및 농어업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세부적으로 농민은 화성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민은 화성시 연속 2년(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수령으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복지부서 상담 등 신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 포함 6개월(180일)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하남시, 민원·옴부즈만 유공 최고영예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2년 연속 민원·옴부즈만 부문 최고영예인 대통령 표창 수상

하남시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주최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498곳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기념식에서 하남시는 '민원·옴부즈만' 부문에서 법무감사관 전도의 청렴조사팀장이 최고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민원여권과 정다해 주무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 최초 개최 이후 현재까지 자치행정기관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하남시가 역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말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한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자량이 되는 모범적인 행정기관이 되도록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월부터 운영... "조세정의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올해부터 외국인 체납자도 실태조사 실시

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반,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말 채용된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로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전달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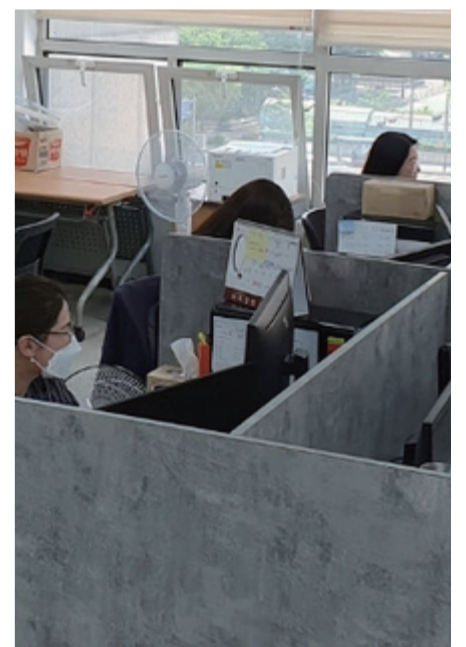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시는 실태조사반을 대상으로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전산 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연계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3억9600만원을 징수했고, 복지사각지

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1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수원특례시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시민의 손으로 수원을 만들어갑니다.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App Store

제안토론

설문투표

새빛돌봄

김영록 전남도지사, 꾸징치 총영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다짐

주광주중국총영사 부임 인사차 방문...다방면 교류 활성화 협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꾸징치(顧景奇) 제6대 주광주중국총영사와 변함없는 우정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꾸징치 총영사는 지난 2월 20일자로 부임한 이후 한국 외교부 등 중앙기관을 방문했으며, 이날 김영록 지사 예방을 시작으로 공관 관할지역 내 지방정부 협력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영록 지사와 꾸징치 총영사는 그동안 다져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향후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다방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징치 총영사께서 한-중 지자체 교류에 큰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꾸징치 총영사는 “전남도와 중국 지방 정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

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꾸징치 총영사에게 전남도의 역점 사업, 중국과의 경제무역, 지방정부 교류계획 등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한국이 낯선 꾸징치 총영사께서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지역을 돌아보도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그동안 전남도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증, 호우피해 위로 서한문 발송 등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하며 교류의 정을 돈독히 쌓아왔다. 꾸징치 총영사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한국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영록 지사 예방 후 전남도의 회 의장, 전남도교육감 등 전남지역 주요 기관장 예방을 이어갔다. 박종배/기자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대만 국제학술포럼에서 “생물전환 스마트챔버 기술” 주제 발표

대만, 일본 등에 순천시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잠재력을 소개, 순천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순천시가 전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핵심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바이오산업 분야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시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이하 순천바이오센터)는 지난 22일 대만 국립 이란대학교 Bio-resource 대학에서 열린 'International Forum on New Trends of Precision Agriculture in Japan and Korea' 포럼에 참여했다. 이번 국제 학술 포럼 참여는 국립 순천대학교 국제교류협력 김진진 교수(의생명과학과)와 엄지범 교수(농업경제학과) 및 국립 이란대학교의 적극적인 초청에 의해 참여하게 됐으며, 순천시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잠재력을 세계 시장에 소개했다. 특히 시에서 추진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챔버'는 단연 독보적인 관심을 받았다. 일본 아키타현립대학 Shin-ichi Fuji 교수와 Katsusyoshi SATO 교

수는 bio-conversion 즉 생물전환 기술의 센세이션이라는 찬사를 보내 왔으며, 대만 국립 이란 대학교 Wei-Jung Chen 부총장, Shu-Ju Liu 국제교류협력단장 및 Shin-Bin Lin College of Bioresources 학장은 “단순 1차농업 기계화에 집중된 대만의 현 상태와는 확연히 다른 고차원적인 기술이며, 영토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만 정부에서도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미래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indoor-farm', 'High-tech green house' 등으로 불리는 글로벌 농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말하며 “순천 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와 순천바이오센터는 이번 포럼 참여를 계기로 MOU 및 정기적인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이송준/기자

나주시, 道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수상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 등 조세 정의 실현 이바지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했다. 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장려상을 차지해 상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려상 수상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 장려 1회 등 체납징수 분야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2023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수치 등을 다뤘다. 나주시는 그동안 체납 차량에 대한 변호판 영치 예고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현장 체납징수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체납자 재산(예금·부동산·채권 등) 압류,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공

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차량 영치 안내 예고 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징수를 제고에도 힘써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 고공행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강진청자축제와 함께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권역 단위기초거점중심지활성화 위원장·사무장 연석회의

지난 2월 28일 농어촌개발과 소속(농산어촌활성화지원센터)는 청자축제장(천년카페)에서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등 22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주민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 대상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권역단위지구, 기초생활기점 등 이미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지역의 대표들로 강진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중간조직인 농촌활성화센터추진회로 열렸다. 지역역량강화는 지역의 인적, 물적 정보자원 등 지역내 다양한 주체의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역량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권역시설물 보수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 군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만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장소를 제공받아 대여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식 센터장은 “농촌의 고령화, 마을의 과소화 등은 대부분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 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체험거리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부활시키는 것들이 많은 만큼 서로 맞대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과 미래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현재 농촌활성화센터는 농어촌체험 지도사, 소통전문가, 드론교육, 토우체험, 반려식물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이후 현장포럼, 마을가꾸기 사업과 함께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 사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민의 희망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추윤호/기자

남원시, 3월에도 AI 방역태세 유지

남원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오는 3월에도 주요 방역조치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소독과 검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왔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29일 종료하지만,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

생 위험성이 있어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 전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남원시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

해 단 한건의 AI 발생없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없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기탁행렬 줄이어

(유)농업회사법인 그린피드 5백만원, 함평군 조사료협의회 3백만원 기탁

함평군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29일 함평군 조사료협의회에서 3백만 원, 동함평산단에 소재한 발표사료 제조업체인 (유)농업회사법인 그린피드에서 5백만 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관내 37개 법인체로 구성된 함평군 조사료협의회는 지역인재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022년부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장학금을 매년 3백만 원씩 기탁하고 있어 지역사회 실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농업회사법인 그린피드 차태원 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탁식 행사에서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함평군

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받은 장학금은 기탁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평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2월말 종료... 그래도 방심은 금물!

전북자치도, 2월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하나 방심은 금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3.10.1.~20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철새가 복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고, 작년 3월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사례(1건) 등을 감안해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 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망성 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총 18건이 집중 발생해 239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도내 철새 분포 밀집도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 인근 산란가금류 농장에서 주로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열악한 발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생 후 2주만에 추가 발생 없이 2개월 이상 비발생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산란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독차량 110대를 총동원한 농장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등 행정과 축산관계자, 농장의 협업을 통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나, 철새 복상시기에 따른 산

발적인 발생을 대비하게 된다.

3월까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오리농가 입식 기준 강화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1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등은 유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길거리 방치 '공유 전동킵보드' 대책 마련 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해 신고방 운영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킵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

전동 킵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험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이뤄지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동 킵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킵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킵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

진도군, '진도토요민속여행' 1,000회 특별공연 개최

'시작에서 영원한 빛' 주제...다양한 공연 선보일 예정



진도군이 올해 28번째를 맞은 진도토요민속여행 1,000회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작에서 영원한 빛'이라는 주제로 특별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1,000회를 맞아 ▲진도 북놀이 합무 ▲타악 공연 ▲진도아리랑 단막극 ▲강강술래 등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도북놀이, 진도아리랑, 강강술래와 새롭게 국악을 창작하는 타악 공연으로 토요민속여행의 멋과 흥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은 지난

1997년 4월 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8년 동안 999번의 공연과 39만 3천여명의 관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토요민속여행은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1,000회 특별공연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프랑스와 맞손 '해양치유·해양바이오 전문성 강화'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과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협력 체계 구축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한 전남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및 차별화 전략 구축을 물론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Valdys) 로스코프 센터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발디즈 대표 이브 디아르(Yves Diard)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이 찾은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로스코프(Roscoff)는 1899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법이 시작된 지역이다.

이날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발디즈 기업은 1960년 두아르네즈(Douarnenez)에서 창설하여 로스코프 해양치유시설을 시작으로 포르니

세(Pornichet), 생장드 몽츠(Saint-Jean-de-Monts) 지역의 탈라스 테라피를 인수·확장해 나가는 전문 해양치유 기업이다.

발디즈 로스코프 리조트에서는 해조류 마사지, 해수 수증 자전거, 수증 체조, 해수 미스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당일, 주, 월 단위로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품 및 스킨케어 사업도 시작하여 인근 지역은 물론 외국에서까지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프랑스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완도군은 지난해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을 해외 5개국에 수출한 바 있어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 우리나라 해조류 소재를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명 화장품 회사인 BCM(Bretagne Cosmétiques Marins)과 피토메르(Phytomer)를

방문했다.

BCM은 해조류를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제조하는 해양성 코스메틱 화장품 전문 회사로 탈리온(Thalion)이라는 글로벌 대표 스파 브랜드를 갖고 있다.

피토메르는 1972년 설립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품 브랜드로 해조류 육상 양식을 통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생산 기법을 통해 스파 전용 고급 해양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완도에서 제품 개발된 화장품 10종과 해양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화 자원 화장품 4종을 선보이며, 한국산 해조류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류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내에 스포츠 재활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를 방문하여 해수풀 등 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는 1911년에

지어진 고급 호텔을 1967년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한 재활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근골격계 및 신경 병리 전문 센터이다.

주로 관절 환자와 뇌 질환 환자가 주를 이루며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는 해수와 해조류 분말을 활용한 관절 치료 전용 수영장이 있으며 지난해 4,000명이 25,000회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최초로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해외 전문기관과 해양바이오 및 화장품 개발 등의 협력을 통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보성군, '제3기 혁신 연구 동아리'가 떴다

공직자의 '나다움'으로 보성군에 '새로움'을 불어넣는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다양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모여 다양한 탐구활동을 하는 '제3기 혁신 연구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1월 6급 이하 공무원 35명이 참여한 5개 혁신 연구 동아리(1개 동아리당 6~8명)를 구성했다.

'제3기 혁신 연구 동아리'는 올해 9월까지 8개월간 군정 발전에 적용 가능한 연구 과제를 자율 수행하고 토론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아리 이름을 스틱치폭폭, △보성다-있쇼(show), △보성 여자일

(agile), 스트렌드 보성 2024, △일보진전으로 톡톡 튀게 정해 연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 주고 있다.

주요 연구 과제는 △직원 복지 활성화, △동호회 활성화, △안전한 보성 만들기, △조직 내 탄소중립 실현, △세대 간 생각 차이 줄이기, △건전한 직장문화 만들기, △활발한 축제 만들기 등이다.

각 혁신 동아리는 오는 9월 성과 발표회에서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연구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동아리들의 연구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라며 "모든 공직자가 군정 혁신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2년부터 혁신모임을 구성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혁신 연구 동아리 활동은 심사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연말에 우수 팀을 시상하고 포상을 부여한다.

최원영/기자



신안군, 흑산초 흥도분교에 미래 희망 인재 6명 입학(전학)

'학교 종이 땀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려 퍼지다

신안군은 3월 4일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에서 신안교육지원청 민방기 교육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했다고 밝혔다.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학생 수 감소와 함께 폐교 위기에서 2023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3세대 6명(학부모 포함 9명)의 학생이 입학(전학)해 입학식이 추진될 수 있었다.

입학식에서 학교 중 수집가 박홍도(전남 무안) 씨의 뜻에 따라 '1949년 흥도국민학교 개교 이래 "흥도분교 제8회 졸업생 일동" 문구'가 새겨진 종을 기증

하며, "이 학교 종이 흥도분교의 학생들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라는 의미로 기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학식에 참석한 흥도마을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난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학교마저 없으면 시골 마을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입학생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흥도마을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모아 전임가구에 가구당 이불 각 3채, 전기압력밥솥 3채, 청소기(물걸레 겸용) 3채, 전자레인지 3채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흑산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가 29개교로 전체 학교의 70.2%에 해당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안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적극 참여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흥도분교 입학생들이 천연기념물 흥도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위원회 개최

관내 9개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등 12개 기관 참여

경상북도는 5일 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경상북도는 지역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골든타임 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북소방본부장 및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으로 응급의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응급의료협의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도의 비상진료 대응 상황과 응급환자 병원 이송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상북도는 도의 비상 진료 대책을 공유, 응급의료기관에 중증 응급환자

포함성모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분산이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협의체 위원장인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2024 기업지원통합가이드'발간

대구광역시와 35개 기업 지원 기관의 지원정책을 한 권에 수록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최신 지원 정책을 담은 '2024 기업지원통합가이드'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구·군과 대구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상공회의소 등 민간을 포함해 총 35개에 달하는 기업 지원 기관의 정책과 산업 동향을 총망라해 8개 분야(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기타)로 나눠 수록했다.

'2024 기업지원통합가이드'는 대구의 미래를 주도할 5대 신산업(미래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분야는 물론 메타버스, 섬유, 기계금속 산업 분야까지 대구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과 신청 절차, 문의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팩토리 사업 등 금융지원책 52개,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등 기술지원책 133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등 인력지원책 56개, 대구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등 수출지원책 38개,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내수지원책 36개, 대

구 C-LAB 등 창업지원책 54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사업 등 경영지원책 41개, 소상공인 지원, 공장 입지 등 기타지원책 45개 등 8개 분야, 455개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 정보들이 담겨 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보들로 인해 필요한 지원책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기업지원 통합가이드는 인쇄책과 전자책으로 발행하며, 전자책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산업·경제 - 산업/경제소식 - 전자책 게시판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2024년 3월 12일~13일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윈스토티업지원박람회' 현장에서는 실물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통합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노쇠예방 '건강업(UP) 사업' 심포지엄 개최... 건강한 부산을 위한 발걸음 이어간다!

2.29. 14:00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노쇠예방 프로젝트인 건강업(UP) 사업의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모색

부산시는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강업(UP)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선보이고, 노쇠예방 프로젝트인 건강업(UP) 사업의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업(UP) 사업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5곳의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를 통한 운동 처방 및 식단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적 관계망 회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략이다.

최고령사회 부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시민이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권역재활병원 4곳 과 민간기업 1곳 이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촘촘히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업 관계자 외에도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유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노인학과교수와 윤태호 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장이 나섰다.

유종률 교수는 '노쇠 예방 사업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태호 단장은 '누구도 외롭지 않게, 누구도 아프지 않게 건강 업(UP) 사업으로 향하는 부산'을 주제로 건강업(UP) 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윤 단장은 시 마을건강센터의 장점을 반영, 주민 건강 조언자를 양성해 주민이 주민을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부산시민 모두가 이 사업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황인경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명준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김종목 동래구 보건소장,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장, 박두영 시 건강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건강 업(UP) 사업의 발전 방

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치며 활발히 논의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건강 업(UP) 사업이 단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넘어,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기관, 병원과 협력하여 우울감 완화와 사회적 관계망 강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부산 전체를 활기 넘치는 건강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사업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홍보 강화, 사업의 질 향상 등에 계속해서 노력해 더 건강하고 다 건강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15분 건강도시 부산 플랫폼 구축

건강UP사업 심포지엄

일시 2024. 2. 29. (목) 13:30-15:30
장소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Program

13:30-14:00	인사말 : 이소라(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 축사 : 김현주(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14:00-14:30	좌장 : 황인경(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주제발표 : 노쇠 예방 사업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유종률(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노인학과교수)
14:30-15:00	건강UP사업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게 누구도 아프지 않게 윤태호(부산광역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장)
15:00-15:50	토론 : 신명준(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 김종목(동래구 보건소장) / 박인선(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장) / 박두영(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과장)
15:50-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16:00-	폐회

주최 부산광역시 | 건강도시사업지원단

봉화군은 지난 2월 28일 상운면 문촌리 일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조류보호협회 등 5개 단체 20여 명이 참여해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물야면 박달령 주실령, 봉성면 다덕재,

소천면 넷재, 재산면 고티재 일원에 옥수수사료 4,000kg을 인적이 드문 이 동통로 곳곳에 살포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청송군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m²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관절 유연! 근육 탄탄! 2024년 영양군 어르신 수(水)클리닉 운영



영양군보건소는 3월부터 비만 및 관절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양군의 노인인구가 41.41%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인 관절염을 앓고 있어 이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4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시한다.

보건소는 재작년부터 진행한 수중운동교실이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고 추가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아 올해 연속성 있게 총 130회에 확대 운영키로 했다.

수중운동 교실을 통해 1:1 맞춤형 기초검진, 비만도 측정 및 체질 분석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 전후의 건강 상태와 통증 정도를 조사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수(水) 클리닉은 물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관절의 압박이 적어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장점과 함께, 물의 저항으로 근육과 조직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비만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비만 및 관절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관절 수중운동, 수중 에어로빅, 개인별 수중운동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수중운동교실을 통하여 관절염 환자들의 관절기능증진과 비만 대상자의 근력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저출생극복위한 성금전달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 전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4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에서 중점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시군의 취약계층, 저출생극복 시범사업에 지원된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이고 범국민적으로 동참할 문제인 것으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의 성과를 즐기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저출생 문제이다."면서 "저출생을 극복할 마중물인 성금이 소중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97년 설립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확대(756세대),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등과 연계한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근수/기자



105년전 그날을 떠올리며 만세를 외치다! 울진군, 제105주년 3·1절 맞이 기념행사

울진군은 지난1일 매화면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3.1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3.1절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매화장터(현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손병복 군수와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의원, 군인, 공무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손병복 군수의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에서 강순식 광복회 울진지회장의 선창에 따른 참석자들의 희망찬 만세 함성은 독립을 열망하던 선열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념사에서 "희망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올랐던 1919년 어느 봄날에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3.1 운동의 화합 정신과 이를 계승한 울진군민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숨이 자,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드론 산업 상용화 지원 나선다...드론 실증도시 구축 박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이어 내년 6월 3회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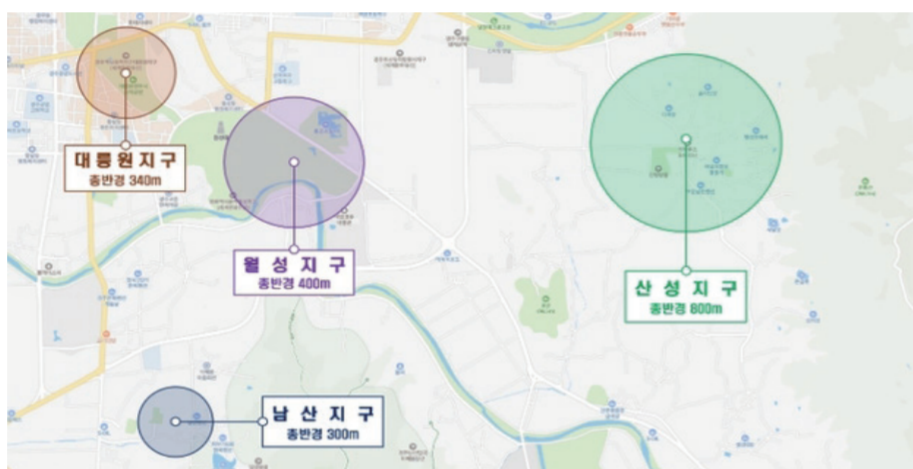
2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경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정된데 이어 3회 지정 도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특구다.

경주시의 드론특구는 △남산지구(0.26km²):내남면 월암재 인근 △월성지구(0.57km²):인왕동 석빙고 인근 △대동원지구(0.81km²):황남동 대동원 인근 △산성지구(0.90km²):천군동 진평재 인근 등 4곳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년간이다.

현재 경주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실증사업 참여자 업체와 함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의 드론특구 추진 방향은 문화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스템 등 드론표준도시 구현이 핵심 골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드론으로 한국형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공간 자체 콘텐츠 생성 및 시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 조립 드론 아트쇼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에도 나서 미래 지향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에 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의 특색 있는 드론 서비스 개발로 관광산업 트렌드 선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 표준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예천군,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자!

오는 12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올해 총 사업비 4억 6천만 원, 3,578명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만 원이 증액되

어 1인 기준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소멸된다.

사용처는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영화, 전시, 공연, 문화 체험 등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시외버스·철도, 온천 등 체육·관광 분야 등에 사용 가능하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대도시와 달리 사용처가 부족해 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규 가맹점 발굴을 통해 대상자들이 다방면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안동시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 행위를 하는 업소이다.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

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소속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 및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라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대계축제에 '8만 인파' 동해안 대표 겨울축제 우뚝

착한 가격, 안전, 친환경' 등 성숙한 운영·관리 돋보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영덕대계축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구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영덕대계축제는 '천년의 맛, 모두의 맛'을 슬로건으로 축제 참여자 누구나 영덕대계의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다만, 축제 첫날 비와 추위로 인해 대계원조마을인 차유마을에서의 안전지원제가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고 개막을 여는 대계거리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후 새롭게 마련된 본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축제장을 풍성하게 채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먼저, 축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영덕대계 낚시'는 성인과 어린이 체험장을 구분해 체험장을 대폭 확장한 점이 큰 호평을 얻어 실시 횟수를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매시간 매진 행

렬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인기 프로그램인 '대계 신고 달리기',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축구게임'을 비롯해 대계 줄 당기기, 대계탈 축구 등도 표를 구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축제엔 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CJ푸드원과 콜라보로 '게살 핑거푸드 시식회'가 펼쳐져 게살 차우더 수프를 비롯한 총 4종의 메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레시피로 매일 600인분 이상 무료로 제공돼 축제 참여자들을 미식의 세계로 초대했다.

'영덕대계 맛 체험'도 일반적인 대계점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대계 요리를 선보였으며, 각 읍면 먹거리 부스 역시 대계라면, 대계국수, 대계육수어묵, 대계파전, 대계비빔밥 등 마을별로 특화된 음식을 내놔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외 올해 처음 도입한 '스탬프 투

어'는 축제장 내부 체험과 지역 관광지 방문을 함께 유도해 축제의 지역 기여도를 높였으며, 축제 정보 안내와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은 축제의 편의성을 개선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영덕대계축제는 종합적인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안전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친환경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실천해 30여 년 이어지던 축제의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축제 14일 전 대표 먹거리 메뉴와 가격을 공시하고 축제 현장의 모든 부스에 판매 품목 가격을 기재한 안내장을 비치해 비용이 약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하나의 도약은 친환경축제 시도로, 읍면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해 친환경 권고하고, 내년 축제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해 친환경축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영덕대계축제추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좁은 축제장의 한계로 축제를 위해 물려오는 관광객들의 20%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수용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며, "내년 대계축제는 사전 매표 시스템 도입 등 올해 축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영 영덕군수는 "올해는 무엇보다 축제를 방문하는 누구나 영덕대계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힘썼다"며, "영덕은 계절마다 맛있는 특산물이 나오고, 자연도 아름다운 곳이니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 지수를 발표하는 랭키파이는 올해 2월 2주차 전국 축제 트렌드 순위에서 영

덕대계축제를 2위로 꼽은 바 있다. 해당 지표의 10위권 안에는 진해군항제 등 국내 굴지의 축제들이 포함됐다.

장문화/기자



경북농업기술원, Voice Of Child [福] 복! 소리 나게

백돌이 복(福, VOC)주머니 전달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0일도의 저출생 전성포식에 발맞춰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힘을 쏟는다.

이철우 도지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출생률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신년 업무보고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 TF를 출범시키고, 저출생 전성포식과 함께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과의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직장 내부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임산부의 편안하고 쾌적한 심 공간 제공을 위해 임산부 쉼터 리모델링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간다.

또,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백돌이 복(福, VOC)주머니"를 백일과 돌 선물로 전달해 출산을 함께 기뻐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등 육아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경북도의 계획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었던 농촌지도자도연합회와 생활개선회를 비롯해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4-H, 정보화농업인 등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4단체



3만 3천 명 회원과 함께 저출생 극복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자기기반 구축사업에 자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도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저출생의 원인 중 과도한 경쟁,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결혼·

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치유농업과 행복한 가족교육(가칭)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며 "농업기술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드림옷장)사업' 확대 추진

청년층 대상으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3년 연속 98퍼센트(%) 이상 높은 만족도로 올해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부산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부산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드림옷장'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 30만 원 상당의 면접 정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취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3년 연속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98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는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산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만 15세 부터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 블라우스 등)과 소품(구두, 벨트, 넥타이 등)을 전문 정장 대여 업체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방법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청년부산잡스에서 회원가입(사용자

전환)을 한 후, '드림옷장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워크넷 구직인증번호 기재, 부산 거주 확인 서류와 면접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면접 1~2일 전에(주말 대여의 경우, 금요일 18시 이전) 희망하는 대여업체, 방문 일자, 시간을 예약한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왔을 시 정해진 날짜에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연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시 빌린 날로부터 3차 4일 이내에 대여업체로 반납하면 된다.

대여업체는 총 5개소(파크랜드 광복점·덕천점·양정점, 리엔테일러, 코칭)로 운영되며,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 측정 후 취입처와 본인의 체형에 어울리는 색상, 사이즈, 디자인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코디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바지 길이 등의 수선 서비스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산잡스 내 드림옷장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올해 '드림옷장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며, "시에서는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하여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으로 본격 확대, 5등급도 지속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500여 대 조기폐차 지원 예정

대구광역시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24.3.5.)되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3월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까지 5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

원과 2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완료했으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9,590대('19년)에서 26,012대('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3,018대('23년)가 남아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2024년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위한 힘찬 걸음

4개 분야, 총 31개 세부과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는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나선다.

도는 4일 2024년 경상남도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공유와 부서 의견수렴 등을 위해 배종길 감사위원장 주재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담당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설명, 예비,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집행 유의사항 안내, 청렴도 향상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부패예방 기능 강화로 근본적 청렴체질 개선, 고위직 관심과 책임의식 제고, 테마별 교육을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분위기 확산 등 4개 분야에 총 3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4년 경상남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권익위 평가와 도 자체 분석 결과 청렴도 취약 분야인 외부체감도 향상, 부패행위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세부추진 시책은 다음과 같다. 부패예방 기능 강화로 근본적 청렴체질 개선

올해는 청렴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기획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외부민원인에게 청렴시책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등 도의 청렴의지를 전달하는 '청렴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장기 지연 대규모 개발사업 특정감사 실시, 부패사건 검정 제도를



위한 '취약분야 공직감찰 강화'로 공직자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고위직 관심과 책임의식 제고 또한 청렴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워킹그룹' 구성·운영하고, 청렴을 일상화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형 청렴주간' 운영, '청렴도 실국장·부서장 관리책임제' 실시, 청렴도민 토크회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테마별 교육을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현장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토론하고 변화하는 찾아가는 청렴서당'을 운영하여 전 부서를 방문하고,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영세업체 위주 '공사, 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 등 조직 내·외부 청렴교육을 연

중 실시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분위기 확산

특히 올해에는 공공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에만 있는 반부패 3무(無)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 이 밖에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안심번호사 대리신고제' 시행,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 강화,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인 '명예도민감사관', '청렴옹부즈만' 등을 통한 각종 부패행위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종길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게 현장에서 청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현/기자

이강덕 시장, 효곡동 찾아 시민 의견 수렴...소통으로 시민 행복 높인다

주민들과 소통 및 지역 숙원사업 발굴 등 논의하며 현장 행정 추진

포항시는 4일 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도의원,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곡동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하나로, 이날 효곡동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 역점사업인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헬스, 포스트의 대대설립 추진 등 포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했으며, 효곡동 지역과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묻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도 가졌다.

특히 포항 철길숲과 형산강 주변 효자권역에 잇는 인도교 설치, 주차장 부족에 대한 시의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포항시의 미래를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쓰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청송군 지체장애인협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청송군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8일 이웃돕기 성금 80만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강의수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된 성금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지체장애인협회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실천은 지역에 나눔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지역사회보장協,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2개월 간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서 지역 내 복지서비스 공급역량과 공급량을 진단했고,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이해와 민·관 연대감 형성을 위해 함께 공유하고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기관별 2024년 신규 및 주요사업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사

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록 후 적합한 서비스 대상자 연계,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및 관리, 복지서비스 공급계획 및 추가적인 복지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김OO씨(75년생, 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변경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며 "단순한 정보제공 방식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사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양군 협의체의 활동이 더해져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관 협력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강남구랑 당근할래요?” 강남구, 당근마켓 채널 홍보 이벤트 개최

3월 4일 구청 현장 이벤트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00명 대상... 당근마켓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 전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4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근마켓 강남구청 단골맺기 첫 이벤트를 개최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당근마켓 커뮤니티를 새로운 홍보 채널로 발굴했다.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강남구 채널을 널리 알려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당근마켓→동네생활→공공소식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이벤트는 강남구청과 당근마켓을 하면 당근 모형을 뽑고 당첨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됐다. 온라인 이벤트는 300명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다. 당근마켓에서 강남구청 비즈 프로필과 단골맺기를 하고, 단골을 인증한 캡처 화면을 네이버폼으로 보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15일 강남구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당근마켓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유튜브 쇼츠 등 변화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최신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서초구, 4일부터 중소기업인 대상 735억원 초저금리 대출 시행

전성수 구청장 “구의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라”

서울 서초구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올해 총 7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6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저금리인 연 0.8%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중이거나 휴·폐업한 경우, 유휴·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자금 조기 소진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 시행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하며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 서류를 갖춰 지정 은행을 방문,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와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업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575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2월 기준 3%대의 대출금리로 업체별 최대 7천만원을 보증 지원하고 5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담보여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정 은행을 방문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진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은행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대출금리를 구에서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알려드려요!” 광진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횡단보도 등 현장 단속 구간, 이동식 CCTV 설치 구간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한 유의



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3년 도입됐다. 2023년 기준 누적 총 173,11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지역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65개소로,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후 단속이 이뤄진다. 단,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의 현장 단속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선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광진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핸드폰 번

호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누리집’ 또는 ‘주정차단속알리미’, ‘휘슬’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일반적인 단속 행정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단속 구역 사전 안내를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주민 손으로 25일 만에 동의율 70% 찍어

동의서 접수 25일 만에 지구 지정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2/3 동의율 초과

서울 중구는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구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인 67%(토지등소유자 3분의 2)를 넘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향률이 50%가 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만 예정지구 지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토지등소유자 780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며 준비에 착수했다. 동의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1일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동의서 접수에 힘을 보탰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동의서 모집 시작일부터 불과 13일 만에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 50%를 넘어섰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5일 만에 지구 지정 동의율까지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전문업체 등을 이용하는 다른 정비사업들과 달리 순수하게 주민의 힘과 구의 공공지원만으로 결과를 빠르게 이뤄내 이번 성과의 의미가 더 크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여 저층·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

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 건설하는 사업이다. 보통 자치구에서는 홍보, 상담 등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는 달랐다. 구는 현장 지원뿐 아니라 SNS 밴드를 운영하며 직접 만든 동의서 작성법 안내 영상, 언론보도, 각종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추진력을 높였다. 약수동 주민 정준모(76)님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 단번에 동의율을 넘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적’과도 같다고 했다.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LH는 이달 국토교통부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다. 이르면 4월 예정지구로 지

정되고 주민 동의서가 LH에 전달되면 본격적으로 LH가 나서서 사업을 주관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구 지정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보상 및 이주, 철거 등 단계별 사업절차를 통해 약수역 인근(신당동 346번지 일대)에는 1천616세대가 거주하는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2028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사업이 LH 주관으로 본격화되더라도 우리 구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

서울시 성북구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반려동물 1마리 당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내장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해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을 갖춰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고양특례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

환경부 전국 시군구 대상 8개소 선정, 그중 강원 2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횡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2중 이상을 병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환경부에서는 처지 곤란인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로 재활용하고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8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그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와 횡성군이 선정되어 유기성 폐자원별 국고보조율 대비 10%를 상향 지원받아 총 국



비 75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춘천시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를 투입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력 및 수소를 생

산하여 운수품을 운영하고 청정수소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횡성군은 전국 최초로 우분을 투입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여 우분의 에너지

화에 앞장서고,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공회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약 55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명장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도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 무생산제에 대비한 기반마련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정강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 강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한·중 투자 협력 강화 '쟁걸음'

Ⓢ 강풍전자 방문 및 중카이고신구 당서기와 간담회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국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을 잇달아 만나 한중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을 닦았다. 자매도시인 중국 동관시를 방문 중인 박경귀 시장은 3월 3일 동관시 인근에 위치한 강풍전자 혜주시 사업장을 방문했다.

중국 저장성 위야오시에 본사를 둔 강풍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고순도 타깃(코팅제품) 생산기업으로, 지난 2월 6일 아산시와 700억 규모 투자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강풍전자는 올해 아산 음봉 위두단지 예정지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고순도 스퍼터링(진공증착방식) 타깃(코팅제품)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200명을 신규 고용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박 시장의 강풍전자 방문은 MOU 체결식 환담장에서 아산시와 중국 동관시가 자매결연 도시이며,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쉐쩌 강풍전자 총경리가 박 시장을 정식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혜주시는 동관시와 접경해 있으며 LG, SK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산업도시다. 특별히 강풍전자 혜주시 사업장은 업체 측이 음봉위두단지 신설 계획을 밝힌 공장과 같은 초고순도 타깃(코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날 동관기업인회 주최 만찬 참석에 이어 강풍전자 혜주 사업장까지 둘러본 박 시장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아산시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풍전자의 새로운 인연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아산시 투자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우셴민 혜주시 중카이고신구 당서기와 간담회를 가졌다.

혜주시 중카이고신구는 1992년 중국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다. 중카이고신구 내에 위치한 한중산업단지에는 LG, SK, SONY, 아사히, 코카콜라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박 시장과 우셴민 중카이고신구 당서기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며 양 도시가 한중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우셴민 당서기는 “중카이고신구는 1992년 설립 이래 5천 개가 넘는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한 국가 핵심 경제지역”이라면서 “중국의 글로벌 전산산업 클러스터인 중카이고신구와 대한민국의 첨단도시 아산시가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면 양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선 휴일임에도 아산시 대표단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해 준 중카이고신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LG, SK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중카이고신구에 투자해왔고, 중국 강풍전자는 아산시 음봉 위두단지 예정지 투자를 결정했다. 아산시와 중카이고신구는 경제적으로 이미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면 전략적인 접근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급변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에서 아산시, 중카이고신구가 새로운 관계의 물꼬를 튼 만큼 향후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결의대회와 연계한 '2024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는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

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토론회에선 건설, 도시, 건축,

충남도, 도·시군 건설공무원 '한자리에'

4일 도청서 '2024 건설행정 토론회' 개최...청렴 실천도 결의

교통, 도로, 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도의 역점 과제와 시책 등 54건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국비 1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예산 신속 집행

목표 달성 등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이어 시군이 제출한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건설사업 추진 △국도32호(정미~송악) 대체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로 개설 조기 추진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추진 방향을 살폈다.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청렴 분야에서도 솔선수범하면서 '힘센충남'을 실현하자”라면서 “앞으로도 도는 시군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지속가능한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착공식 개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 일원(오송 컨벤션센터 조성부지)에서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중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착공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충북도의 뷰티 화장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기술개발, 새로운 뷰티트렌드 창조, K-뷰티의 글로벌 확산 등을 목표로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총 3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전시관 부지내에 연면적 9,044m2(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예정이며, 2025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실제 구매력을 가진 내·외국인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K-뷰티 트렌드 교육→체험→구매→사업화 과정의 수출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국인들 대상으로는 뷰티관련 창업 및 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뷰티산업은 신혼구 구매력 성장, 문화산업과 연계된 빠른 전파, 구매력 있는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연평균 약 5%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문화 공유성이 높은 아시아가 전세계 시장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북은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31%(전국 2위),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며 뷰티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제조기업 230여개사, 전국 유일의 화장품산업단지 개발 및 지자체 주관 뷰티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산·학·연·관 간의 조화로운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뷰티산업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K-pop, K-drama, K-movie 등 한류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산업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아 교육을 통한 산업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창업기업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기존 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의 진정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는 오는 4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만18세~만39세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청년 외),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으로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 한 경우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배우자)이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주거복지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동일 지자체(태백시)에는 2년간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2024년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6년에 신청 가능

유상근/기자

'원주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3차 중간보고회 개최

원주시의 미래상을 그려 나갈 비전 제시

원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주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3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25일 2차 중간보고회와 부서별 과제협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공유하고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은 2040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주시에게 매우 중요한 상수원, 전력, 도로, 환경 등의 생활SOC를 비롯해 산업·경제, 도시·교통, 환경·복지·재난·안전,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교육, 농업·농촌, 행정·소통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시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 등을 수립 시 지침서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한편, 원주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4월 중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서울시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공백 막는다

폐원위기 어린이집 포함 공동체 선정...상생·협력으로 양질 보육서비스 차질없이 제공

'탄생유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 공약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2024년 신규공동체 모집이 3.3 대 1의 경쟁률 속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20개 자치구 20개 공동체, 92개 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2월 13일(14일간)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66개 공동체 290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간 거리, 특화보육 운영실적, 공동 프로그램 사업계획, 자치구 참여의지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20개 자치구 20개 공동체, 92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 중인 60개 공동체, 235개 어린이집에 더해 총 80개 공동체, 327개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100개 공동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비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오세훈표 서울 대표 신보육모델이다. 2021년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1년 8개구 14개 공동체, 2022년 전 자치구 40개 공동체, 2023년에는 60개 공동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원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정원충족률 50% 이하) 6개소(4개 공동체)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처한 어린이집이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과의 상생·협력으로 원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어린이집 및 다문화어린이집이 참여한 공동체(9개)도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공동체 내 거점형 야간연장(8개), 석식지원 어린이집의 참여로 다양한 혜택을 공동체 내 원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작년 공동체 내 거점어린이집의 야간연장 석식 지원 등 취약보육 서비스 공동 이용도 9개 공동체 49명의 아동이 647회 이용돼 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아이발달센터 연계 부모코칭, 다누리배움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체에 점차 증가하는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공동체별 공동 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 원과 어린이집별 생태친화환경 조성 목적으로 환경개선비 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협의체, 교사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알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시는 기획 중인 프로그램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체 원장 대상으로 실천계획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고민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프로그램 기획서 접수 결과 부모님과 함께 푸른숲 만들기(플로깅), 업사이클링 캠페인, 러러운 이웃돕기 '김치 담그기', 생태그림책 도서활동, 차이와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경로잔치' 우리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축제 등 특색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한, 공동체 내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다함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기후변화, 친환경 등 포괄적 주제의 '생태친화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했다.

'다함께 프로그램'은 공동체 내에서 양육자, 교사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양육자 중 발레 강사가 있으면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칠 수 있다.

'생태친화 프로그램'은 그간 절기행사, 자연물놀이 등 행사위주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로웨이스트), 사랑나눔 등 캠페인으로 주제와 범위를 넓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결과, 차량·물품·교재 공유, 교구 공동구매,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원아를 공동체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공유해 신속하게 입소 지원(91명, 29개 공동체), 차량 공동이용(260회, 49개 공동체)으로 체협학습 기회 확대,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의 우수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보육현장의 만족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굳이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2023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내 가정어린이집 현원은 3월 909명에서 12월 1,258명으로

38.4% 증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 양육자, 원장, 보육교사 세 집단 모두 2022년 대비 2023년 만족도가 상승했다.

"어린이집들끼리 공동체를 이뤄 운영한다는 게 생소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네 아이, 내 아이가 아닌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니 운영비도 절감되고 보육교사들의 역량도 성장해 작년에만 어린이집 현원이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은 시대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어린이집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로구 개봉아이공동체 민간어린이집 원장 이○○씨)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된 후 양육코칭 전문가가 와서 아이 발달문제, 기질문제를 강연해주고 개별상담도 해주셨는데 다른 어린이집의 연령별 사례를 듣고 양육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동체 내 4개 어린이집이 함께 가족캠프를 갔는데 친분을 쌓은 학부모들과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쯤 영 어유치원을 고민하던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아이들 정서를 고려해서 다같이 모아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공동체 어린이집 양육자 김○○씨)

김진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운영비 절감, 입소 공유, 보육프로그램 공동 시행과 같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만의 강점이 입소문을 타며 보육현장에서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저출생으로 폐원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새롭게 선정함으로써 보육공백을 막고 재원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보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보육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천안동남경찰서, '24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56명 선발 초등학교 25개교 배치 순찰활동 전개

천안동남경찰서는, '24년 3월 4일 오후 2시, 신학기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동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등, 하굣길 주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평소 봉사에 열의가 있는 은퇴한 노인 전문인력 등을 선발한 후 초등학교 등, 하굣길 주변에 배치하는 치안보조인력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56명은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돼 천안시 동남구 7개 지역관사(지구대, 파출소)의 25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장 수여, 직무 전문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 아동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순찰하며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학교주변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치안공동체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완도해경,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 나서

바닷길 안전을 위한 완도해양경찰의 외침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여객선 기관 고장 등 안전저해사고 발생 및 농무기 대비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29일 관계기관 및 여객선사 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안전감독관 및 여객선사 8개소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여객선 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대응요령 숙지여부 확인, 안전운항 준수 당부 및 내·외부의 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을 되짚어 보며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깨진 유리창 이

런처럼 사소한 작은 사고가 중대한 안전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위험 요소 전반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며 전했다..

양영율/기자



대구시, 지난 한 해 도시철도 유실물 79% 주인 품으로

유실물 3,219건 중 2,535건이 반환되고, 지갑과 전자제품이 가장 많아

대구교통공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유실물은 3,219건이고, 물품 개수로는 7,842개다. 이 가운데 2,535건·6,670개의 유실물이 반환됐고 건수 기준 유실물 반환율은 79%다. 2022년도 유실물 반환율이 83%인 것에 비해 반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주인에게 돌아간 유실물은 지갑이 1,036개(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자제품 888개(13%), 현금 798건(12%, 79,588천 원), 가방 249개(4%) 순이었다. 주인을 찾지 못해 경찰서로 인계된 물품은 1,172개였다.

반환율 감소는 현금이나 귀중품이 아닌 의류 및 교통카드 등과 같은 품목은 찾아가지 않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소형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분실자들이 분실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중한 유실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60대 남성 승객이 570만 원 가량의 현금 및 상품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했다는 접수를 받았다. 역 직원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분실자의 동선을 확인해 분실장소로 추정되는 모든 역을 수색한 결과 영남대역

에서 분실물을 찾아 유실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도시철도 이용 중 물건을 분실했던 경우 승차역, 승차시간, 객실 내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차량 위치 등을 유실물센터 또는 가까운 역에 통보하면 직원이 신속한 유실물 수배를 통해 유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호선 반월당환승역 유실물센터에서는 접수된 유실물을 공사 홈페이지에 유실물 사진과 함께 습득 장소, 습득일 등을 게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는 유실자가 직접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분실물 신고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유실물센터 직원은 "유실물 반환은 또 다른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유실물 반환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세심한 주의도 함께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경북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청렴 서약 및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식 진행

경북교육청은 4일 본청 응비관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와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직원은 청렴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약속하며, 청렴 실천 의지 확산에 동참했다.

특히,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청렴 실천 결의 행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솔선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하여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 서약과 고위직 청렴 실천 결의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초등학교 입학식 참석.

‘아이신나’경산교육지원청, 힘찬 여러분들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교육장은 입학식이 일제히 열린 4일 오전 10시 경산옥곡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응원했다.

박경화 교육장은 경산옥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신입생 135명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 입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했다.

이날 경산시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1,772명의 신입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은 교육장 축하, 학교장 인사말, 교육지원 소개 및 학교 소개, 재학생 및 신입생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만남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생 김○○ 학생은 ‘교육장 할아버지가 입학에 환영해 주셔서 더 신나고,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할 초등학교 생활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또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의 입학을 응원해 주시고 경산교육에 대해 안내해 주셔서 우리 아이의 앞으로의 성장의

기대된다.’라며 경산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교육장은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축하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어 참석한 학부모에게는 ‘학력, 늘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나는 ‘아이신나’경산교육이 되도록 학부모님들의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안동 영가초등학교 신학기 등교 현장 방문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손뼉 치며 힘찬 첫 출발 응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일 안동시에 있는 영가초등학교를 방문해 긴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힘찬 신학기 첫 출발을 응원했다.

전교생이 398명인 영가초등학교는 새내기인 유치원 신입생 26명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1학년 신입생 49명도 함께 등교했다.

이날 도내 1,580여 개 학교들은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학사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24년을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 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 신장, 힘이 되는 미래교육으로 미래를 변혁하는 주체, 따뜻한 학습을 더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천, 혁신하는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학교 등 네 가지를 2024 경북교육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힘찬 발걸음으로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늘봄학교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추진

울진교육지원청은 3월 4일 관내 늘봄선도학교 중 한 곳인 울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원을 추진했다.

2024 늘봄선도학교 현장 지원 및 컨설팅은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준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신학기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 현장지원단이 2월 16일에 울진남부초, 부구초, 후포

초를 방문하여 현장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했고, 2월 20일에는 교육부 현장지원단이 직접 울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 확인 및 컨설팅 지원을 했다.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늘봄선도학교 현장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신학기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문화/기자



부산교육청, 더 신나고 즐거운 아침체인지(體仁智) 운영

4일 ‘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 기본계획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아침체인지(體仁智)’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體仁智)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체육활동이다.

친구들과 신체 부대끼를 통해 건강체력을 회복하고,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요일제형 ▲자기주도형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교육과정 연계형 등 4개 운영 형태를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아침체인지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이 가운데 ‘요일제형’은 학교 규모를 고려해 학생당 주 1부터 5회 참여할 수 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 개인 종목형과 축구, 농구, 배구 등 단체 종목형을 학교 여건을 고려해 20분 이상 운영하면 된다.

올해는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특수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 중 인조 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요청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회와 연계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족공감체인지’도 운영한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협의해 종목·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올해 초·중·고 25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침체인지 동·하계 방학 캠프’도 운영한다.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교 활동보다 더 심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나선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아침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더욱 신나고 즐거운 체육활동을 위해 제작한 ‘아침체인지 송’도 현장에 보급한다.

4분의 4박자 신나는 리듬으로 작곡한 이 노래는 학생들의 아침체인지 참여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교육청 지난해 12월 아침체인지 상표등록을 마쳐 부산형 아침 체

윤근수/기자



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아침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더욱 신나고 즐거운 체육활동을 위해 제작한 ‘아침체인지 송’도 현장에 보급한다. 4분의 4박자 신나는 리듬으로 작곡한 이 노래는 학생들의 아침체인지 참여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교육청 지난해 12월 아침체인지 상표등록을 마쳐 부산형 아침 체

전남 초등생들 꿈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4학년도 전남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들 8만 2000여 명이다. 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수당 신청 후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으로 방문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전남꿈 실현 공생카드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된다.

수당은 오는 3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20일자로 바우처카드(전남꿈 실현 공생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

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신청 기간이 지나고 3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도 학적에 따라 4월부터 매월 20일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발생 연도 내에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도에 발생된 포인트는 연내에 사용해야 하고 2025년 발생 포인트는 2025년 3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신청과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카드(전남꿈 실현 공생카드) 사용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입생 교복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현장 체험학습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복지 사업에 3,400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업이 가치있게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전남교육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청렴 실천’ 시작합니다.

전 직원 반부패·청렴 다짐식 선서

영양교육지원청은 4일 영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식』을 실시했다.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 서약서』의 중심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공익을 우선한 업무수행 △직권 남용, 이권개입, 알선 및 청탁 금지 △공품 향응수수 금지 등이다.

영양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서약식을 계기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며, 깨끗하

고 청렴한 조직문화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지를 대 내외적으로 표명하고, 관행을 빙자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청렴 다짐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더욱 확산 되기를 바라며, 모든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 가치를 다지고 청렴을 생활화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뢰받는 따뜻한 영양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전기 아끼면 보상받는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 나쁨이나 전기사용 많은 시간대 1시간 동안 10% 이상 아끼면 보상금 지급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거나 전력 공급이 곤란할 때, 또 전력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아끼면 보상을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미션(주인DR)'이 서울전역 4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에너지 절약미션(주인DR)' 서비스에 참여할 신규 아파트 2만 2천가구를 3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 중인 2만 1천 세대와 함께 총 4만 3천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미션'은 전력거래소나 서

말하는 세대에서는 주인DR 서비스 '에첵' 앱과 실거주 인증을 위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세대가 '에첵' 앱으로 DR발령 알림을 받고 한 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면, 1천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프트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및 소비패턴을 조회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실천을 도와준다.

한편, 스마트 가전기기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 '에너지 절약미션 자동화(AutoDR)'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LG전자 '씽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비효율 알림, 누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절약미션 참여는 전기요금 줄여 성공보상금 받고 온실가스 배출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 "유니콘 키우자" 벤처 투자 20배 늘린다

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난해 5억→올해 100억으로 대폭 확대



충남도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20배 늘린다.

또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을 맞잡고,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4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IN) 충남'을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태홍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노베이션 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도 출자 펀드 1조 원 조성 △기술 창업 기업 1만 개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

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중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캐일업팀스협회 회장, 김재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 등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억 원에 비해 20배 많은 규모로,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6%)에 비해 도내 벤처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비중(전국의 2%)이 크게 떨어진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도내 벤처기업(1320개)이 전국(4만 81개사)의 3.3%에 불과한 점도 출자 확대 배경이다.

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 출자와 연계해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도내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창업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산업은행은 도내 소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도내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 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양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대회 개최 △기술보증 △보증 연계 투자 및 투자 연계 보증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김태홍 지사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해 전방위로 튼튼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충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남은 올해 100억 원을 출자에 적극 지원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벨리를 제대로 만들어 벤처기업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토스'와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토양을 조성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벤처 투자를 위해 386억 원을 출자해 14개 펀드를 조성, 7개 239억 원은 청산하고, 7개 펀드(총 2766억 원 규모·도 출자 147억 원)를 운영 중이다.

청산 완료 펀드에서 회수한 금액은 287억 원으로, 회수율 120%를 기록했다.

특히 도는 지난 2018년 '충남-한화 중소기업육성펀드'를 통해 천안에 위치한 2차전지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기업은 도의 투자를 받아 연구인력 등을 확대했고, 2021년에는 기업공개(IPO)를 실시해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공개에 따라 도는 원금과 수익금 157억 원을 회수하며 523%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최정근/기자

부산시,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커피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사업화·마케팅 3개 분야 지원... 총 16개사 모집, 기업당 최대 1천5백만 원 지원

부산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은 국내외 포럼 개최,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사업화·마케팅 지원, 커피산업 실무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커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총 16개사를 모집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연구개발(R&D), 사업확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3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시제품 개

발, 원천기술 확보, 공정개선, 제품 고도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3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업화·마케팅을 통해 시장분석, 제품홍보, 판로개척,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며, 10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주사업장(본사)이 부산 지역에 소재한 커피 전문점 또는 커피산업 관련 기업으로, 참여 신청은 (재)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현장 실태조사 포함) 등을 거쳐 적합 업체를 선정하고, 4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부산 커피기업의 브랜드 가치 증진과 기술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커피업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는 커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부산 커피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것이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커피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2차 펀드' 1179억 결성

시·북구·광주은행 공동출자...광주 인공지능 기업에 133억 의무투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가 4년만에 인공지능 투자펀드 1179억원을 결성, 지역 인공지능 창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북구청, 광주은행, 광주테크노파크, 5개 펀드 운용사들과 '인공지능(AI) 2차 투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인 북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조수봉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대표, 조명우 바인벤처스 대표, 오현세 제이씨 에이치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규 에이벤처스 부사장, 조상현 오라클벤처투자 대표 펀드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광주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인공지능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모태펀드 등 중앙정책펀드와 연계해 조성한 펀드이다.

광주시는 지역 인공지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북구·광주은행과 60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등 '인공지능 2차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 말까지 총 1179억원을 결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광주 인공지능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지역 창업기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투자 유치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필요로 하는 업무 협력등을 담았다.

또 수도권 인공지능기업의 광주 유치를 비롯해 광주 인공지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상담 지원,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연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2차 인공지능 펀드 가운데 총 133억원을 의무투자액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인공지능기업 발굴 및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인공지능 2차 투자펀드 결성은 지역 인공지능(AI)기업들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

터와 광주역 창업밸리, 창업펀드 및 창업페스티벌 등 광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역에 뿌리 내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1차 투자펀드는 지난 2020년 11월 1098억원이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역 13개 인공지능기업에 투자돼 지역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됐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최대 창업밸리 조성 ▲5000억 창업펀드 구축 ▲창업기업 제품 실증 사업 지원 대폭 확대 ▲유·초·중·고부터 대학, 대학원, 실무인재까지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창업페스티벌 개최 등 창업기업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가 되고 있다.

김병수/기자



경기도교육청
DO THE Goe · 1분전

[파세요] 정책 대량구매 합니다

e정책장터에서 좋은 정책 파세요 🍀

- ✓ 대상: 경기도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 시기: 언제나(상시)
- ✓ 내용: 교육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안 등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상금과 표창) 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구해요~

📞 조회 2490055

e정책장터 바로가기

www.epolicymarket.goe.go.kr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